

익산서동축제, 요일별 스토리텔링 형태로

금마면 서동공원 일원에서 '백제왕도 익산 세계를 품다' 슬로건 아래 내달 27일 개막 불거리·즐거거리 다채

익산시가 주최하고 익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익산서동축제 2016이 오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백제 왕도 익산 세계를 품다 라는 슬로건으로 금마서동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서동축제는 익산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맞춰 서동과 백제의 유적이 있는 금마 서동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며, 요일별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프로그램 기획으로 불거리와 즐거거리를 제대로 갖춘 축제로 선보일 예정이다.

3일간 진행되는 서동축제는 서동의 탄생부터 무왕즉위식으로 연결되는 스토리 전개형 축제로 진행된다.

이번 서동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은 축제의 주인공인 서동을 선발하는 「서동선발대회」를 꼽을 수 있다.

대한민국 만 17세 이상~만 27세이하 남성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5월 6일까지다.

총상금은 760만원으로 서동, 성충, 계백 장군을 선발하게 되며, 선발된 참가자는 내달 27일 '서동선발대회' 본 무대에 서게 되는 영광을 얻는다.

무왕의 즉위식을 축하하는 행렬단을 재현한 프로그램인 '무왕즉위행차 퍼레이드'도 큰 볼거리다. 무왕의 즉위식까지



서동선발대회는 대한민국 만 17세 이상~만 27세이하 남성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5월 6일까지다.

이어지는 행렬단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참여단체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퍼레이드 참여 신청은 4월 29일이며 총 213km 거리를 행진하는 '무왕즉위행차'는 5월 28일 금마종합에서 금마서동공원까지 행렬하면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 기간동안 건전한 신체와 정신 함양을 위해 매일 열리는 '건강한서동경연대회'는 활쏘기, 닭싸움, 줄다리기, 달리기 등을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구분하여 서동무예체험장에서 진행된다. 축제 마지막날에는 용감한 기백을 가진

멋진 꼬마 서동과 서동이 첫눈에 반한 예쁜 선화공주를 뽐는 「서동선화 주니어 선발대회」가 열린다.

전북에서 출생하거나 주소지가 전북인 만4세 이상에서 만7세 이하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4월 29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본무대는 5월 29일 무왕무대에서 펼쳐진다.

대표프로그램 이외에 전시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전문 DJ를 섭외, 현장에서 분위기 조성을 하며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한 「서동가면 무도회」, 스텝퍼퓸어 형식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념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방문하는 「용을 타고 백제 투어」, 「유물발굴체험」, 「백제의복체험」등 재

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이 진행된다.

부대프로그램으로 서동비바공연원 주차장에서 축제장까지 운행되는 「마동열차」, 서동이 캔 「바」를 재료로 한 특화된 웰빙 먹거리 「서동미음식 테마존」,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4대 종단별 공연 및 시립예술단과의 합창을 통한 시민 화합의 장인 「서동선화 시민화합 합창제」가 펼쳐진다.

이밖에도 「서동선화꽃마차」, 「서동문화체험」, 「서동시민열린공연」, 「서동선화 골든벨」, 「서동사생대회」, 「서동백일장」, 「서동청소년 가요제」등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축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익산=정양원기자

전북 완주힐조타운 드론학교 개설

드론 전문업체인 이스코는 전북 완주힐조타운에 드론학교(이동진 교장)를 개설하고 오는 24일 오후 3시에 개교식을 갖는다.

이날 개교식에는 드론 시범비행과 함께 드론에 대한 정보 교류 및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이후 드론학교는 드론 조종·제작·영상편집의 교육을 통해 드론전문가를 양성한다.

교육과정은 입문 4주, 중급 6주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문의 010-4025-3578 드론학교 조교선생님. /정해은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매일밤 야외상영

전주국제영화제가 축제의 열기를 배가시킬 야외상영작과 부대행사 및 전주시민할인 혜택을 공개했다.

야외상영은 영화제 기간 중인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영화의거리 옥포주차장에 조성될 전주라운지 내 야외상영장에서 매일 저녁 8시에 이뤄진다.

야외상영작은 <쇼콜라>루슈디 켈, <동주>이준익, <카이:거울호수의 전설>이성강 <천공의 별>츠츠미 유키히코, <리브 어게인>로버트 에드워드, <히디>알렉스 그스퍼, <미국에서 온 모리스>체드 하티건 총 7편으로 매일 한 편씩 상영된다.

이들 영화 관람객은 영화감상과 더불어 갈라 프리젠테이션, 무대인사, 공연 등 각종 부대행사를 덩어로 즐길 수 있다.

▲4월 29일 상영되는 <쇼콜라>는 19세기 말 활약한 프랑스 최초의 흑인 서커스 아티스트의 삶을 그린다.

▲4월 30일 <동주>와 ▲5월 5일 <미국에서 온 모리스>는 상영과 함께 '갈라 프리젠테이션'이 마련된다. 갈라 프리젠테이션은 영화 관람 전 상영작의 감독과 배우의 레드카펫과 무대 인사를 만나볼 수 있는 이벤트다.

▲5월 1일 상영되는 <카이: 거울 호수의 전설>은 감독과 프로듀서의 무대인사가 있다.

<카이: 거울 호수의 전설>은 독창적인 애니메이션 작가로 주목받았던 이성강 감독의 신작으로, 소년 카이가 눈에 달린 마을을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히어로물이다.

▲5월 2일 상영되는 <천공의 별>은 일본 내 원전의 원전 중단을 내건 테러리스트와 맞서는 스틸러 영화다. <백야행>, <용의자X> 등 다수의 작품이 영화화된 바 있는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원작을 바탕으로, 위험사회로 진입한 일본을 그리면서 한국에도 경각심을 던져주는 사회파 영화다.

▲5월 3일 상영되는 <리브 어게인>에서는 연기파 배우 크리스토퍼 윌슨과 최근 <대니쉬 걸>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엠버 허드가 아버지과 딸로 분해 열연한다.

▲5월 4일에는 아름다운 가족영화 <히디>가 관객을 기다린다. 요한나 슈피리의 원작 동화를 충실히 옮긴 이 영화는 스위스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광을 위이드 스크린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야외상영에 가장 어울리는 영화이다.

이와 함께 전주국제영화제 야외상영작 현장 예매시에는 '전주 할인' 적용이 적용된다.

대상은 전주시민 및 전주지역 내 대학생으로 야외상영작 현장 예매 시 본인을 포함한 2인까지 50% 할인 받는다. 이에 해당하는 관람객은 할인된 가격인 3000원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고창동리국악당, 신영희와 함께 하는 국악한마당

오늘 밤 7시 30분
동리국악당서 무료공연



신영희 명창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5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이다

고창동리국악당이 4월의 테마 공연 '신영희와 함께하는 국악한마당'을 마련했다.

21일 오후 7시 30분 동리국악당 무대에 오르는 이번 공연은 풍부하고 깊은 성음이 폭포수같이 쏟아지기도하고 애원성 짙은 소리로 관객을 울게도 하며 때로는 해학적이고 재미있는 사설이 박수를 치며 웃게 만드는 판소리의 깊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연으로 마련됐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제25회 동리대상 수상자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 5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인 신영희 명창과 그의 제자들의 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신 명창은 고창이 낳은 대표적인 명창 만정 김소희의 민정제를 오롯이 이어가

고 있는 소리꾼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번 무대에서는 신영희의 소리를 전승하고 있는 이주은(국립국악원 상임단원), 정미정, 김유경(국립창극단원) 등 내로라하는 젊은 명창들의 소리와 전주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

치고 있는 전통악원 누리센터 이종규 대표가 선보이는 무용 한량무, 원완철(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수석), 배관(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원), 고수 신규식의 시나위 합주 그리고 유체진의 가야금병창 등을 감상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완주군 '문화두레' 예술교류 넓혀

완주군이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두레 정신을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문화예술분야 공동체 '문화두레'에 이름을 올렸다.

'문화두레'는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풍성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고유의 공동노동조직인 두레를 모델로 각 기초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연, 축제, 전시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파견 및 교류하는 협력사업이다.

완주군은 이번 문화두레 결성을 통해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와 THE 태권포스 '에이지 오브 태극'과 비비락 공연예술협동조합의 '선녀와 나무꾼, 허시코베기' 등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만든 공연을 완주군 대표 문화 품앗이 콘텐츠로 내세운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내 유일하게 완주군이 참여하여 완주포 문화 콘텐츠'를 문화두레제전 및 각 기초자치단체 행사에 파견하여 널리 알릴 전망이다.

완주군은 지난 20일 경기도 시흥사에서 열린 지방정부 '문화두레' 출범식에 참석하여 전라북도에선 유일하게 두레 정신을 바탕으로 전국 18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문화예술 분야 공동체에 그 이름을 올렸다. /완주=이종복 기자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4월 21일>

▷쥐띠
46년생: 정신이 맑지 않으니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좋지 않은 운.
60년생: 구설수와 시비가수기 따르는 운.
72년생: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니 미리 대비하라.
84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니 상황을 잘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소띠
49년생: 금전운이 좋지나 적극적으로 활동하라.
61년생: 어려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니 큰 걱정은 하지 마라.
73년생: 동기간의 협동으로 해결된다.
85년생: 모진 말속에 해답이 숨겨져 있으니 원망하는 마음을 거둬라.

▷호랑이띠
50년생: 외부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이나 앞으로 나아가지 말고 내실을 다져야 하는 운이다.
62년생: 가솔이 시달리니 단비를 만난 격.
74년생: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86년생: 욕심을 부리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운.

▷토끼띠
51년생: 힘든 상황에 놓였던 사람은 한숨 돌릴 수 있겠다.
63년생: 도처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
75년생: 모질고 귀를 험하게 하는 소리가 도움이 되는 운이니 길게 들어보라.
87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용띠
52년생: 동기간의 도움을 받으면 생각보다 쉽게 이룰 수 있다.
64년생: 남자는 여성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76년생: 들을 얻었으면 하나를 보내야 하는 운이니 짐작은 금물.
88년생: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면 화가 발생하니 마음을 비워라

▷뱀띠
53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해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운.
65년생: 예상보다 상황이 좋게 돌아갈 수 있으니 실망하지 마라.
77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몸의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여라.
89년생: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평안하게 지나가는 운이다.

▷말띠
54년생: 주변에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생기는 운이다.
66년생: 지나치게 나서면 구설수가 따르게 되니 상황에 따른 대처가 필요하다.
78년생: 주변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운.
90년생: 의의 없이 행동한 일에 관련한 상황이 발생하는 운이다.

▷양띠
55년생: 내부에서는 결단이 필요한 때다.
67년생: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는 운이니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하지 마라.
79년생: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 있는 운이니 주의하라.
91년생: 변동하면 흥분하고 좋아하니 망설이지 마라.

▷원숭이띠
55년생: 사고수를 조심해야 하는 때. 원망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69년생: 금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주의하라.
81년생: 구설수, 시비가수기 따르니 언행에 삼가라.
93년생: 지나친 과당성은 주위 사람들의 문제를 이기하니 조심하라.

▷닭띠
57년생: 봄에 수확을 하려는 격이니 때를 기다려라.
69년생: 지금 현재는 답답하고 힘들다 차츰 운이 좋아질 것이다.
81년생: 변해 변화에 무리하지 말고 잘 적응해 나가라.
93년생: 천우신조가 있으니 매사에 순리대로 진행하면 편안해질 것이다.

▷개띠
48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다. 상황을 잘 살펴서 경각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0년생: 여자와 상대하면 반목이 많이 일어 잘 풀리지 않으니 주의하라.
72년생: 시비가 따르니 불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뒤로 물러서라.
84년생: 좋지 않은 일이 몰려 다가오는 운이다.

▷돼지띠
47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니 주의하라.
59년생: 움직이면 이득이 있고 머물면 손해가 따른다.
71년생: 성공하게 행동하기는 일이 틀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
83년생: 매사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후에 움직여야 한다.